A12

관상동맥질환 및 맥압이 신부전 진행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1]

권순길, 김상현[1], 장재원[1], 김순배[1], 박정식[1]

배 경: 만성신부전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은 정상인에 비해 증가되어 있으며 죽상경화증이 신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되어있지 않다. 맥압의 증가 또한 죽상경화의 정도를 반영하며 신부전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죽상동맥경화에 따른 관상동맥 질환과 맥압의 변화가 신부전을 진행시키는지에 대한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방 법: 서울 아산병원에서 3년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경증의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혈관조영술로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검사하였고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및 여러 변수들을 추적 관찰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유무에 따른 신부전의 진행 여부를 비교하였으며, 다변량회귀분석을 통해 신부전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맥압의 증가가 신부전에 주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87명(남자 54 여자 33명)의 환자들 중 45명이 관상동맥질환이 있었으며 42명은 없었다. 관상동맥질환이 있던 45명중 34명(76%)에서 신부전의 진행을 보였으며,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42명 가운데는 22명(52%)이 신부전의 진행을 보였다. 여러 요인들 중 신부전의 진행과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으로는 평균 동맥압, 맥압, 당뇨병성 신증, 24시간 요단백, 혈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있었으며 그들 중 맥압은 특히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었다.

결 론: 죽상경화에 의한 관상동맥질환 및 맥압의 증가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신부전의 진행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기능이 저하된 관상동맥질환 환자에 있어 맥압 및 위험 인자들의 조절이 신부전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